



16면

학교체육 활성화 협력

# 전주매일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음 6월 9일) 제305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진지한 모습으로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



2022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6일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다.

#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김관영 도지사, 정책조정회의 통해 선제대응 주문  
도, 중환자·특수환자 발생 대비 의료체계 재점검  
여름철 맞아 개인 생활방역 수칙 안내·홍보 강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6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관련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관영 지사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재유행 단계 초입에 진입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하면서 의료대응체계 준비사항 점검과 생활방역수칙 생활화를 위한 안내·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주 전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저번 주 대비 32.1%(640명)가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달 29일 이후 계속해서 1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중환자 및 특수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활방역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 확진자도 일반의료체계내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597개소 지정을 완료했다. 이 중 223개소는 진료-진단검사-치료를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윈스톱 의료기관이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내 상시 감염병 대응 '감염관리센터'를 구축하여 51병상을 확보하는 등 238개의 병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놓고 있어 아직 의료 대응 여력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유행 규모를 쉽게 예측할 수 없고, 오미크론 유행 시 입산부, 투석환자 등이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다시 한번 의료대응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확진 시 80대 이상 고위험군이



중증화율이 높으므로 4차 접종률 제고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실외마스크 완화 등으로 도민의 방역 인식이 완화됐다고 보고 생활방역수칙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 방역점검기간 운영을 통해 주요 관광지, 물놀이 시설, 휴가지 인근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에서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안내 및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도내 사업장, 아파트, 읍·면 방생시설 등을 통해 방역수칙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카카오톡·페이스북과 같은 SNS와 재난문자 등을 활용한 안내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

## 광역상수원 오염원 관리 전북도, 행정력 투입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광역상수원인 용담댐, 옥정호 등 녹조 발생 예방을 위해 호소 내 낚시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유입 오염원 관리에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도는 광역상수원 지킴이 116명을 투입해 상수원 주변 감시와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상수원 감시 활동 중에 수질오염이나 녹조 발생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현장 사진과 메시지를 시·군에 실시간으로 통고해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바일 북부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조류 발생의 주요 원인인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김경수 기자

## 태권도 고장 전북 '관심집중'

도, 워싱턴서 태권도 연계 관광홍보 행사 성료  
관광 설명회·홍보관 운영·여행사 상담회 열어  
21개국 1만5000여명 태권도인 전북 관광 인기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미국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2 국기원 미국 태권도 엑스포'에서 21개국 태권도 관계자와 미국 현지 태권도 가족 등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관광 홍보관 운영 및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태권도를 중심으로 세계유산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전북여행 자원을 홍보했다. 전북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태권도인과 태권도 가족으로 '태권도'의 고장 전라북도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달 30일에 열린 '전북관광 설명회'에는 미국 현지 태권도인 13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안전하고 깨끗한 여행지와 태권도인과 연계한 가족여행 일정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전북관광의 국제 관광시장 재개에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워싱턴 하얏트 리젠시 델레스 호텔과 조지메이슨 대학교 이글뱅크아레나에서 열린 2022 국기원 미국 태권도 엑스포



이달 1일과 2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여행사 상담회를 개최해 한국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들을 만나 올 가을 단풍연계 여행상품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미국 현지 여행사는 '2023 전북문화자원 연계 야간 여행 상품' 기획을 위해 올 하반기에 전북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 국기원 미국 태권도엑스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에 걸쳐 워싱턴 하얏트 리젠시 델레스 호텔과 조지메이슨 대학교 이글뱅크아레나에서 열렸다. 국기원 50주년 해에 열린 이번 행사는 국기원장배 대회·심사원 자격증 코스 등 엘리트뿐만 아니라 태권도 수련생 모두가 참여하는 시합 등 태권도 축제 엑스포 행사였다. 이순택 전북도 관광총괄과장은 "해외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승하는 흐름에 맞춰 전북도의 강점인 태권도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홍보했다"며, "앞으로도 태권도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특정층을 대상으로 관광개 유치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https://www.sunchang.go.kr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 친환경 농업도시 순창

비옥한 땅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순창의 친환경농업

사람과 환경을 위해 땅을 일구는  
건강한 순창이 있습니다

순창군 SUNCHANG